



# “면과 비례 중시”... 구상회화라는 긴 화업

###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 ‘형상, 시가 되다’ 6일 개막 박광진 화백 1950~1980년대 사실주의 작품들 전시

제주 자연 풍광에 빠져 50여 년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박광진 화백. 아흔을 넘긴 그는 한국 구상회화의 거장으로 불린다. 195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구상미술의 제도적·미학적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이자 미술행정가이다.

1950~1980년대 그의 회화를 통해 한국 구상회화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린다. 이달 6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 분관에서 개막하는 상설전 ‘박광진: 형상, 시가 되다’이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소리’ 연작

으로 잘 알려진 풍경화 이전의 작업들을 중심으로 작가의 초기 화업과 조형적 탐구의 궤적을 되짚는다. ‘국보’, ‘토끼장’, ‘백자’, ‘토기’ 등 박물관 유물과 건축, 인물 등을 소재로 대상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1950년대 구상회화 작업, 면과 비례를 중시한 화면 구성 등 작가 초기 조형 언어의 특징이 담긴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내놓는다.

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사실주의 아카데미 화풍이 드러나는 풍경화도 함께 선보여 이후 ‘자연의 소리’ 연작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사실적 풍경화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펼쳐진다.

아울러 작품과 함께 작가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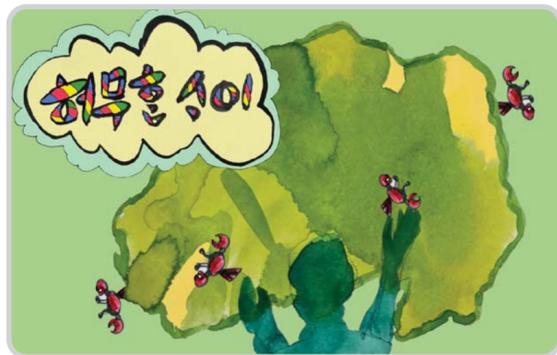


박광진의 ‘국보’

과정과 당시 미술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전시는 개막 후 오는 11월 1일까지 이어진

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향관 <489> 구성:(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콜멘: “누님, 나 싯땅에 갯되디강 놀당오쿠다양.”  
좁네 골저: “경허라 뜯아으덜광 아이덜 멍심허멍 놀라이.”  
하르바지 콜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시인이신 제주어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엔 혼디서 ‘허무한 스이’에 대한 시 이익을 허여보겨.”

- 허무한 스이 -

갯되디 혼디 가문 골메덜 확 돌아올랑 축하비행을 해 주는 스이  
좁앗 앞이 투다앗양 피영잇인 쫓따도 더 한 쫓송이덜 가슴으로 피와내는 스이

하나가 아프민 혼디 아프는, 눈공저마다 똑 굵은 돌이 트는 스이

무인도에 혼디 살명 밤하늘 별밖에 올랑 벨을 당 느려오당 벨그루이 손아정 벨베락을 꿰어 맞는 스이

그 스이, 아이엠에프 폭탄 털어전 소나인 죽고 여준남안, 인생이 죽곡 스랑이 죽곡 백년을 지드려도 포시 만날 수 잇인 스이, 벨도 돌도 쫓도 골메도 그 사름덜 문 이즈분 스이

<계속>

<자료:양전형 제주어시집 ‘개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솜>

### 제주어 풀이

- \*허무한: 허무한. \*스이: 사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 \*갯되디: 바닷가에. \*골메덜: 갈매기들 \*혼디 가문: 같이 가면.
- \*놀아올랑: 날아올라서. \*쫓꽃: 참꽃. \*투다앗양: 붙어앉아.
- \*피영잇인: 피어있는. \*하나가: 하나가. \*피와내는: 피워내는.
- \*아프민: 아프면. \*혼디: 같이. \*털어전: 털어져서.
- \*굵은 돌: 같은 달. \*벨도: 벨도. \*돌도: 달도.
- \*쫓도: 쫓도. \*사름덜: 사름들. \*골메도: 갈매기도.
- \*탕 느려오당: 따 내려오다가. \*여준: 여자는.
- \*스랑이 죽곡: 사랑이 죽고. \*지드려도: 기다려도.
- \*손아정 벨베락: 손아저서 벨베락. \*눈공저마다: 눈동자마다.
- \*문 이즈분 스이: 다 잊어버린 사이.
- \*만날 수 잇인: 만날 수 있는.
- \*벨밖에 올랑: 벨밖에 올라서.



## 회화적 조각으로 담은 말의 형상

### 서울 제주갤러리서 유종욱 ‘에테르’ 전

제주 유종욱 작가의 개인전 ‘에테르-형태 너머의 공명(Ether-Resonance Beyond Form)’이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 있는 제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해 온 ‘2025 제주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결과보고전이다. 유종욱 작가는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진 사업의 마지막 입주작가다.

작가는 제주를 기반으로 ‘말(馬)’이라는 상징적 형상을 중심에 두고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작업

을 이어왔다. 말의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회화적 조각’이라는 독자적 조형 세계를 구축해 작업을 이어왔다.

전시는 조각 안에 회화적 감성을 구현해 말 조형 작업과 함께 최근 작가가 집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장인 ‘에테르(ETHER)’와 존재를 구성하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탐구해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이달 16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 “문예창작의 시작”... 도민문학학교 운영

###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 문예창작아카데미·멘토링

제주도민과 작가 지망생들의 ‘문예창작의 시작’을 돕는다. 제주문학학교가 ‘2026년 도민문학학교’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도민문학학교는 문예창작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창작자 양성과 문학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다.

기존 ‘창작공간’은 ‘작가양성 문예창작아카데미’로 명칭이 바뀐다. 문예창작아카데미는 40강 규모로, 체계적인 단계별 창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창작 이론과 실기 지도를 병행하고 작품 구상과 집필, 퇴고 실습까지 이어지는 실전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도민문학학교는 또 시·시조·소설·수필·아동문학 등 기존 장르에

더해 ‘제주어문학’을 새롭게 포함해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예창작아카데미 수강생에겐 이후 제주지역 작가들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신진 작가 발굴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인 ‘문예창작멘토링’으로 연계돼 지속적인 창작 역량 강화가 지원된다.

기존 ‘제주문학아카데미’를 개편한 ‘제주문학공간’은 제주의 역사 문화와 제주인의 삶이 녹아 있는 작품을 탐색하고 한국문학과 차별화

된 제주 소재 문학을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특강으로 마련된다. 찾아가는 문학교실도 확대돼 도내 작은도서관과 동네책방에 지역 작가를 연결해 주민들이 문학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제주문학관에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도내 일원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일정과 모집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학교 온라인플랫폼(네이버 카페·밴드,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거나 전화(070-4115-1038)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축 임**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임이사 신용상임이사

**현상철**

**박근범**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경제상임이사·신용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축 득**  
의학박사

**임민영**

부: 임승찬(현대해상 동영대리점, 애월읍 하거리)  
모: 김정림(정관장 노형점, 안덕면 창천리)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냄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0대1’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